

5면에서 계속

다 군자君子라 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상하게 하는 바라 상처내는것이그화禍와재앙이되는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공이 행장行狀을 읽어보니 불행히도 이에 가깝다. 오호라, 아프도다. 공의 문장이 처음에는 비록 널리 마음껏 보고 박식하게 골라 취했으나 그리하여 경학經學을 얻은 것이 많았던 고로 들어와서는 어버이를 섬기고 나가서는 임금께 고함에 있어 그 바탕의 실제가 지성에서 발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험뜬어 이간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언동言動을 들어보면 가히 덕이 있는 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 수집하여 공교히 짜맞춘 것일 뿐이라고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저술한바로는독역수차讀易手筭、중용변의中庸辨疑、사림평요史林評要、남위록南爲錄、광산록光山錄、용문록龍門錄、초산록草山錄이 있어 집에 소장하고 있다. 내자內子정부인貞夫人신평이씨新平李氏는 형조참판 거씨의 증손 호조정랑戶曹正郎잠潛의 딸인데 17세에공에게귀의하여효도와 공경으로 상서롭게 승순하고 비록 노복奴僕과 하례下隷에게도 일찍이 꾸짖어 욕하는 일이 없었고 집이 가난하여도 처함을 기꺼이 하였다. 공이 졸한 지 3년에 부인이 나이 7세인데 임금이 시종신侍從臣의어머니로나이70이상인이에게 곡식과 비단을 차등 있게 내리니 부인이 정성으로 받고 탄식하기를 ‘미망인未亡人이 홀로 이수異數를 향유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하였다. 학사公學士公(장자 해)이 어버이가 장수하여 임금이 호사스러운 하사를 내리는 경사를 맞음에 잔치를 여니 경연經筵의 신하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연회를 도우려면 모름지기 음악을내려야겠다하였다. 학사공이 관서關西(평안도)를 안찰按察(관찰)하게 되어서는 수연壽宴을 벌이기 위해 은술잔과 은수저를 만들어 드리니 부인이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금은 그릇을 본 일이 없는데 미망인으로부터이를 비롯한다는 것이 불가하다’하고 돌려보내 감영監營에서 소장케 하라 하였다. 계유癸酉(1693) 1월에 아들 별검군別檢君(차남 영B)이 급환으로 병서病逝하니 부인이 병환을언어갑술甲戌(1694) 8월갑자甲子(2월)에서을집에서줄했다. 이해4월에학사공이먼저영남에찬배되어 있었는데 경연의 신하가 아뢰니 임금이 휴가를 주어 돌아와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안산安山の 오리현梧里峴묘좌卯坐 언덕에 임시로 장사하였다. 장남 해는 문장과 학행이 있어 관직이 대사헌大司憲에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인데 곧 학사공이다. 다음 박璞은 장원서별검掌苑署別檢이고 다음 분바는 일찍 졸했다. 딸은정언正言심득원沈得元, 참봉參奉정경주鄭經周, 진사進士 이만수李萬秀에게출가하였다. 대한공의계자繼子は 신경信經으로 진사이고 딸

은 정도관丁道觀에게출계하여 일찍 졸했다. 별검의 아들은 필경弼經과 체경體經이고 딸은 강식침姜植沈에게출가했다. 정언의아들은 수간壽②、수백壽柏이고 딸은 목천현睦天憲에게 출가했다. 정재랑鄭齋郎(참봉 정경주)의 아들은 태서泰瑞、항서恒瑞이고 나머지는 어리며 딸은 이모李某에게 출가하고나머지는어리다. 이상사李上舍(진사이만수)의처는일찍몰하여후사가 없다. 내외 증손 약간인이 있다.

이 비문은 저자 옥천 조덕린이 행장을 보고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그행장이혹시공의종질제남濟南 환 이 지는 것인데 이를 가첩 등에서 비문이라 기록해 놓아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공의 묘소가 시흥군 동면 독산리에 초장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또한 임시로 갈장渴葬을 했던 초장지가 안산의 오리곡梧里谷또는 오리현이었다가 뒤에 제대로 복택卜宅하여 독산리에 이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이 비문에공이3일의병환으로급서할때의정황이상세히나와‘ 집에벼락이들어가’공이 몰했다는등의 실록에 실린 해설이 사실과 다름도 밝혀지게 되었다. 공이 졸한 음력 4월이면 초여름으로써아직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자주 내릴 시기도 아닌 것이다. 어쨌든이번에뜻밖에 인물 옥천 조덕린이 지은 공의 비문이 길고긴 장문으로 발굴되어 나옴에 따라 돈간재 연구에 관한 자료가 몽땅 쏟아져나온 셈이되었다.

다음은 미수 허목의 기언별집 8권에서 나온 공의 시에 쓴 미수의 서序 ‘돈간재시서敦良齋詩序’의 내용이다.

蓮城郡南十里曰屏山其下有權氏舊業 權氏者 今懷道太守權侯仲車是也. 侯介潔 不容於朝 自暇於屏山之下 行遊自娛 得小洞於山之東麓 地幽而勢阻 群山環列 其外望遠岫浮嵐 巖壁下泉水出焉 水清冽可以煉藥 伐蒨啄溪滌泉源 石上有老楓曰楓巖. 巖下地漸下 引泉水灌爲三池 三池水滿綠深洌 鑑其上池曰觀魚之池 水深魚樂 其下曰君子之池 植以荷花 又其下曰說物之池 有漑田之利 其洞曰艮隱之洞 築小齋於池上 因名曰敦良齋 不亦善乎. 艮止也 止得其所也 大易艮爲山 山之性靜 靜故止也. 君子則之 時止則止 時行則行 然必以久終爲貴 艮之上九發敦艮之吉告之以至善之道也. 今侯之名其齋 而所以 者盡矣 仍爲之作詩其詩曰

屏之山堅且不崩 屏之池泓且澄 屏之居安且平 知其止厚且亨.

연성蓮城(안산)의 고을에서 남으로 10리에 병산屏山이 있고 그 아래 권씨權氏의 묵은 세업世業이 있다. 권씨란 지금 회도懷道(공주公州) 태수太守(원) 권후權侯중거仲車이다. 후侯는강직하고결백하여 조정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한가함을 취하여 병산 아

래 노닐며 혼자 즐기면서 산의 동쪽 줄기에 작은 골을 얻으니 지세가그윽하고여러산이그박을둘러 바깥으로 바라보면 먼 산봉우리가 아지랑이에 떠오르고 있고 암벽 아래에는 샘이 있는데 물이 많고 차가워 약을 달일 만하여 우거진 덩불을 쳐내고 그 근원을 치고씻어냈다. 돌위에는 늙은 단풍나무가 있어 풍암楓巖이라 하며 바위 밑으로 지세가 차츰 낮아지는데 거기에 샘물을 끌어대세 연못을 만들었고 세 연못에 물이 차자 파랗게 깊은 것이 마치 거울과 같았다. 그위에있는못을관여지지觀魚之池라 하니 물이 깊어 물고기가 즐거워하며 다음 못을 군자지君子之池라하여 연꽃을 심었으며 제일 아래 것을 설물지說物之池라 하니 전답에 물을 대는이로움이있다. 그골을간은동艮隱洞이라 하는데 못가에 작은 서재를 짓고 인하여 이름을 돈간재敦良齋라 하니 또한 좋지 않은가. 간艮은그침이니그침이그 있을 곳을 얻은 것이다. 대역大易(주역)에는 간艮을 산山이라 하였는데 산의 성성은 고요한 것이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치는데 군자가 이를 본받아 그칠 때이면 그치고 나갈 때이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오래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간괰艮卦의 상구上九는 ‘간에돈독하게하니길하다는소리를 발명發明하였는데이는 지선至善의 도리를 알린 것이다. 지금후가 이를 그 서재의 이름으로 하였으니 그 힘쓰고 힘쓰는 소이가 극진한것이다. 이에이를위한시를 지으니그시는이러하다.

병지산견차불붕屏之山堅且不崩 : 병산은굳세어서무너지지않고 병지지홍차징屏之池泓且澄: 병산의못은깊고또한맑구나 병지거안차평屏之居安且平: 병산에살아편안하고평화로워 지기지후차형知其止厚且亨: 그그침이도답고도형통함을알겠네.

이는 공이 안산의 병산 아래 돈간재를 짓고 읊은 시에 미수가 서를 쓴 것이다. 공의 원시는 없어졌지만 미수의 문집에 남은 이서한편은 병산 아래의 돈간재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우암 송시열과 숙명의 정적이었던 미수 허목은 선조 28년, 1595년생으로 공보다 25년이 연상이고 숙종 8년, 1682년에 88세로졸했다.

다음은 일암一庵 신몽삼辛夢參의 ‘돈간재명敦良齋銘’이다.

天生斯人有物有則則者其止是謂懿德 散於萬事 各有是理 省乎一身 其則甚邇 遠取諸物 有孰可比。驗之義易 垂示實炳 唯卦有艮 上止下靜 山之爲象 屹屹其峙。一鎮地軸 萬古不徙 是以君子 知止有定 靜而能慮 見得必瑩 思不出位 于以自考 爲父止慈 爲子止孝 君止於仁 臣止於敬 以至事事 隨遇以正。於貧於賤 素履而泰 彼富彼貴 不願乎外 然人之止 鮮能其久。人欲易窮 天理難割 日用之間 因物有移 云爲之際 亦乖其宜 九 爲山 一功虧萬里發 中途卽岐志以之變守以

之奪 事幾終廢 節幾晚失。所以上九 敦艮是明 其敦伊何 篤志力行 毋怠須臾 尤愼毫忽 剛健既至。光輝發越 道以自通 德以自新 止於至善 一乎其純 不離動靜 無違終始 強哉其矯 中立不倚 嗟爾吾黨 勉哉獨愼 止其所止。亦由其進 非誠曷久 非敬曷充 知至而至 知終而終 確乎其正 是曰其吉 勿謂能止 諒難有卒。

하늘이 이 사람을 냈으니 사람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치는 것이라 이를아름다운덕이라 하네. 만사가 다 흠오져 있으나 각개에 다 이치가 있으니 한몸을 돌아보면 그것이 매우 가까이 있으며 이를 멀리 있는 대상에서 취하면 누구나 견줄수가있네. 복희伏羲의역易에 징험하여 실제 밝음을 드리워 보이니 오직 이는 간괰艮卦라 위에서 그치니 아래가 고요하며 산의 형상이라 높고높은 고개가 지축地軸을 한번 누르고 앞으면 만고토록 옮기지 않으니 이것이 군자가 그쳐서 안정할 줄은 아는 바이로다. 고요하면숙려熟慮할수 있고 모아서 얼음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옥빛이니 지위에 나갈 것을 생각지 않고 이로써 스스로를 고구考究하네. 아비가되어서는자애롭고 자식으로서는효도에 그치며 임금은 인仁에 그치고 신하는 공경에그치네. 이로써사사건건에 이르고 만나는 일마다 바름이 따르면서 빈한함이나비천함이나흰신을 신고 편안히 여유로우며 저들이 부유하거나남들이 존귀하거나 바깥의 일을 원치 않네. 그러나 사람이 그치는 것을 능히 오래 하는 자가 드물으니 사람이 욕망에 쉽게 빠져드는지라 하늘의 이치는 갈라보기 어렵네. 일용을 하는 동안에 외물外物로 말미암아 이동되기도 하고 이를 말하는 사이에도 그 마땅함이 어긋나기도 하니 아홉 길의 산이 된 것도 한 삼태기 공효로 이지러지네. 만리를 가려 수레를 몰다가도 중도에서 갈라져 나가면 그로써 뜻이 변하고 지키는 바가 빼앗겨 일이 끝내 폐지되기에 가깝고 만년에 절개를 잃게 되기 쉽네. 상구上九의 가득참이 있는 까닭에 간艮을 도타이하여 이를 밝히게 돈간敦良인데, 그 돈敦이란 무엇인가. 뜻을 독실히 하고 힘써 행하여 잠시도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터럭같이 소홀한 것에 더욱 삼가는데 굳세고 건강함에 이르게 되면 광휘가 발산하여 넘어가고 도가 스스로 통달하네. 덕으로써 스스로 새로워지고 지금히 선한 데에 그치며 한결같이 그 순박함에서 동정에 따라 이탈하지 아니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어그리짐이 없으니 그 바로잡음이 굳세도다. 가운데에 서서 기울지 않으니 우리의 무리가 훌륭하도다. 홀로 힘쓰면서 삼가고 그쳐야 할 데에서 그치며 또한 그 나아가야 할 바로 말미암는데 성誠이 아니고 어찌 오래 갈 것이며 경敬이 아니고 어찌 충실할 것인가. 이르러야 할바를 알아이르고 끝내야 할바를 알아 끝내며 그 바름을 확고히

하니 이를 일러 길하다 하거니 그칠 수있다고 함부로말하지 말라. 마치는것은진실로어렵도다.

일암신몽삼은공보다28년뒤인 1648년에 나서 1717년까지 6세를 산인물이다. 다음은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의 존재선생문집存齋先生文集1권에서 나온 칠언절구七言絶句1수로서 존재가 공에게 보낸 정시로詩이다.

자암천여천휴동행自臨川與天休同行 천휴절정거회분매天休折鄭居晦盆梅 정우돈간재안하呈于敦良齋案下 차호사아批好事也 인부시이기지因賦詩以譏之: 임천에서천휴와같이동행해오다가천휴가정거회가분재한매화를꺼어다돈간재의서안아래바치니이는좋은일이라인하여시를지어쓴다

옥설매화옥결인玉雪梅花玉潔人 : 옥같은눈빛매화옥같이순결한사람같은데

절래상대진정신折來相對 精神 : 꺾어온것을마주하여그정신을다받아들이네

방인막석화지손傍人莫惜花枝損 : 곁에서꽃나무가지손상된것말것이

지차풍정역가진只此風情亦可珍 : 다만 이 풍정 또한 보배로울 수 있나니

이휘일은 재령이씨載寧李氏로 영남의 거유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형이다. 공보다1년 앞선 1619년에 나서 1677년까지 5세를 살았다. B세에의조부경당敬堂장흥효張興孝에게서 맹자의 존심양성存心養性설을힘써배워호를존재存齋로 하였다. 학문이 깊고 회박하여성리학의일가름이루었으며재야에서 침잠하여 학행으로 참봉에 천거되었으나부임치않았다. 여러 저술을남기고뒤에영해의인산서원仁山書院에제향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천휴天休는 박태손朴泰遜의호이다. 박태손은공보다 21년 후 1647년생이고 1697년까지 52세를 살았다. 33세인1678년에 진사進士로서 성균관에서 시행된 제술製述에서 장원하여 전시殿試에 오를 자격을 받고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영남의염문사廉問使를거쳐 정언正言、수찬修撰이 되었을 때 개혁을 위한 7조의 소를 올렸다. 부교리、지평、이조좌랑을 거쳐 경연시독관으로 있으면서는 박세채朴世采와 송시열 등 재외의 유신을 다시 불러들일 것을 청했다. 이조정랑、응교、승지를 지내고 대사간、경상감사도 거쳐 대사성大司成으로서 시관試官이 되어 장자莊子의 어부편漁父篇에서 과제課製를 냈다가 추고를 당했다. 당시이조참의를거쳐 1689년에하지사賀至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승지로 있으면서 숙종의 거스름을 사 원지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죽었고 1698년에 작위가 회복되었다. 정거회鄭居晦는 누구인지조사를미처못했다.

<權五晷>